

基础朝鲜语

姜信道 编著

(第四册)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基 础 朝 鲜 语

第 四 册

姜信道 编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京)新登字182号

基础朝鲜语 (第四册)

姜信道 编著

责任编辑 金秉运

出版者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北京和平街北土城 邮政编码 100029)

印刷者 北京市朝阳区新源印刷厂

发行者 新华书店北京发行所

开本 787×1092 1/32

印张 11.375

字数 252千字

版次 1993年3月第1版

印次 1995年6月第2次印刷

印数 5001—10000册

书号 ISBN 7—81000—547—2/H·104

定价 11.50元

(如有印刷、装订差错,可向本社发行部调换)

目 录

第一课

课文: 전통문화와 효 사상..... (1)

注释: 1. 动词 “다투다” 以 “다투이” 形式修饰动词,
“버릇되다” 表示起源; 副词 “미처”; 不完全
名词 “것”

2. 连接词尾 “다가(다)” 表示结果与希望相反;
添意词尾 “마저” 表示包括

3. 惯用型 “얼마든지”

课外阅读: 화법에 대하여..... (23)

第二课

课文: 부엉이를 잡은 농부..... (29)

注释: 1. 人称代词 “당신”, 名词 “때” 的 “근때야” 形
式, 形容词 “마뜩하다”, 动词 “대다” 的
“아(어, 여)대다” 形式, 不完全名词 “대로”
以 “근대로” 的形式表示极限

2. 连接词尾 “니까” 结束句子, “다가” 以 “다가
는” 的形式表示根据; 终结词尾 “노”, “ㄴ
(는, 은)고”, “조이다(조이까)”, “너라”,
“도다”

课外阅读: 여름 (52)

第三课

课文: 쫓겨가신 선생님..... (56)

- 注加: 1. 名词“대체”充当副词, 词组“말이 아니다”, “태산갈다”, 副词“평”, 动词“하다”以“名词를(을)하다”的形式表示形态, 军体口令
2. 连接词尾“거니”以“겠거니”的形式表示揣度, “려나부다”

课外阅读: 시험 세 문제..... (76)

第四课

课文: 옥녀봉 (81)

- 注释: 1. 名词“참”充当不完全名词, “노다지”的演变; 动词“두다”以“를 두고”的形式表示时间距离, “보다”以“고 보면”的形式表示根据
2. 终结词尾“라”表示感叹, “느길(는길, 은길)”
3. 惯用型: “名词란 名词는(은)”表示包括一切

课外阅读: 오대산 삼선봉..... (105)

第五课

课文: 의인의 길..... (112)

- 注释: 1. 动词“안기다”的被动态和使动态, 名词“여유”的“여유있게”形式
2. 造格词尾“로(으로)”表示方式、样态
3. 惯用型: “기에 넉넉하다”, “케하다”, “그런가 하면”

课外阅读: 아침을 기다리다..... (131)

第六课

课文: 용돈 시위..... (135)

注释: 1. 不完全名词 “대로” 的 “...는...대로” 形式,
“통” 的 “통에” 形式, “투성이”; 动词 “보
다” 的 “다보니” 形式, “미루다” 以 “로(으
로) 미루어” 形式表示由此知彼

2. 终结词尾 “ㄴ(을) 게”, “구려”, “느길(느
길, 은길)”, “대요(래요)”

课外阅读: 어머니 (153)

第七课

课文: 가난한 날의 행복..... (157)

注释: 1. 前缀 “헛”, 名词 “눔” 指物

2. 与格词尾 “에게” 的省略形 “게”, 终结词尾
“서요”

3. 惯用型: “ㄴ(을) 것이 못되다”, “나보다” 以
“았(었, 였)나보다” 的形式结束句子

课外阅读: 아버지의 뒤모습..... (172)

第八课

课文: 소박한 삶의 향기 풍기며..... (177)

注释: 1. 不完全名词 “터” 表示时机, 词组 “눈이 어둡
다”, 名词 “일쭉”, “아랑곳하다”, “손
이 모아지다” “잔뼉가 굽어지다”

2. 惯用型 “지 않고서는”

课外阅读: 얼굴 (194)

第九课

课文: 구렁이와 땡..... (197)

注释: 1. 词组 “그러면그렇지”, 名词 “적소리”, 动词 “말다” 以 “말고” 形式表示 “除开”, 名词 “참” 充当不完全名词, 不完全名词 “턱” 表示当然

2. 惯用型 “나 하다” 表示猜测

课外阅读: 구암산 (214)

第十课

课文: 동방의 향기..... (217)

注释: 1. 动词 “고사하다” 的 “는 고사하고” 形式, 名词 “지경” 的 “르(을)저경” 形式, 词组 “마지아니하다” 表示庄重

2. 连接词尾 “며” 以 “다며” 形式结束句子

3. 惯用型 “이렇다할만한”

课外阅读: 우풍이 산을 읊기다..... (238)

第十一课

课文: 금강산 팔선녀..... (241)

注释: 1. 副词 “좀처럼”, 词组 “못잊어하다”

2. 连接词尾: “나” 连接两个形容词, “고” 充当添意词尾表示包括, 添意词尾 “디” 介于两个形容词之间, 时间词尾的特殊形式 “았었 (있었, 였었)”, 终结词尾 “리까(으리카)”

3. 惯用型 “르(을)듯말듯”

课外阅读: 금강산 (265)

第十二课

课文: 소설 《상록수》에서…………… (268)

注释: 1. 名词 “한창”, 副词: “좀”, “차마”

2. 终结词尾: “구려(구료)”, “마(으마)” 连接
词尾 “매(으매)” 表示原因

课外阅读: 소설에 대하여…………… (296)

第十三课

课文: 공을기 …………… (301)

注释: 1. 不完全名词 “깨” 以 “깨나” 形式表示程度,
后缀 “께” 表示附近前后, 叹词 “그래” 结束
句子

2. 终结词尾: “ㄹ(을)손가”, “답(람)”, “렴
(으렴)”, “거너”

课外阅读: 아들 …………… (322)

语法小结 …………… (327)

词汇索引 …………… (330)

제 1 과

전통문화와 호 사상

홍일식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겨레의 역사속에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적인 맥락을 말한다.

전통은 인습과는 다르다. 인습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찌꺼기라면 전통은 오히려 새 역사 창조에 없어서는 안될 씨앗이요, 밑거름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옛날의 문화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옛것중에서 오늘에 되살릴만한 가치 있는 문화적, 정치적 바탕을 뜻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개화이후 우리는 이 전통과 인습을 혼동한 나머지 옛것은 모두 낡은 인습이라고 덮어놓고 천대하고 그 반면에 새로운것, 특히 서구적인것은 모두 훌륭한것으로만 여겨 다루어 흥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낡은 인습을 타파하려다가 아름다운 전통마저 많이 잃어버리고말았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문화라는 말은 그것이 뜻하는 범위가 넓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문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는 용기문화라고 하는것인데 사람이 의식주의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도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 문화는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파되고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별로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용기문화는 비록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일지라도 편리하고 효율적인것이면 곧 수용되게 마련이다. 옛날 미국대륙의 원주민들이 백인들과 싸울 때 그 백인들이 만든 총을 구해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했던것과 같은것이 그 예이다. 총은 바로 그들의 적인 백인들의 용기문화의 소산이었다.

둘째는 규범문화라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정신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모든 법률, 제도, 예의, 도덕 같은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것은 용기문화만큼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교류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현대 국가들이 각종 사회적규범을 대개 비슷하게 갖추고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셋째는 관념문화라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로서 그 민족 고유의 언어, 사상, 종교, 신앙, 철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문화에는 그것을 지어낸 민족의 정서가 가장 진하게 깃들어있어서 쉽게 다른 민족이 받아들여 동화시키기가 어렵고 또 민족의 노

력에 따라서는 영원히 지켜나갈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문화든지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마치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듯이 앞선 문화가 뒤진 문화에 흘러들어 뒤진 문화를 흡수하게 마련이다. 특히 관념문화는 고도의 정신문화이기때문에 이것야 다른 문화에 흡수, 동화된다는것은 곧 그 민족이 소멸되는것을 의미한다. 일찌기 청 제국을 세워 중원천하를 지배하던 만주족의 존재가 오늘날 사라지다싶이 된 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때는 역사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내노라 하며 큰소리를 치고 사는 민족은 모두 자기네의 전통문화를 잘 다듬어 지켜온 민족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오늘날 되살려 길이 지켜나갈만한것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가? 수많은것이 있겠지만 부모를 섬기는 효 사상이 으뜸이 아닐가 생각한다.

효도란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도리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정성껏 봉양하고 정신세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따라서 효도는 어버이 생전에만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 하도록 계속해야 한다.

유교사상의 주축이라 할 오륜의 첫째번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친함》을 말하였고 또 유교에서는 이 효를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보고있기때문에 효 사상이라 하면 중국의 유교사상에서 유래된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우리의 효 사상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

듬기고 특히 그 의식과 절차에 있어서 세련된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인이 지녀왔던 효 사상은 유교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효는 유교에서 비롯된 규범문화로서 그것이 곧 생활의식이요, 도덕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효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의 은공에 보답한다는 일종의 보은 사상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효는 단순한 도덕적 생활규범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다는 의리감을 훨씬 넘어선 관념문화로서의 종교와 신앙으로 고수되어왔다. 오늘날까지도 같은 동양문화권속에 있으면서도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이웃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보다 우리 한국인에게 훨씬 강하게 남아있는것은 이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은 지금도 생활의 밑바닥에 뿌리깊게 깔려있다.

례를 들면, 부모나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의 감정에서도 그 한 면을 찾아볼수 있다.

중국인은 제사를 유교정신에 좇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부모생전에 미처 다하지 못한 자식의 도리를 이어서 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할뿐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이 제사를 지내는것을 보면 그 의형적인 격식이나 절차는 비록 유교식을 좇아 중국인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중국인과 다르다.

우리는 조상이나 부모의 평혼이 제사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신다고 생각한다. 또 조상의 평혼은 자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 즉 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일종의 기복 신앙의 형태를 띠고 발전해왔다.

돌아가신 조상을 향한 이러한 절대감정은 바로 살아계시는 부모에 대한 생각의 연장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비단 제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면을 찾아볼수 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생일을 기념하던 풍속에서 예를 들어보자.

생일이 한 생명이 태어난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같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생일 맞는 당사자의 출생을 기리는 뜻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생명을 낳아서 키워주신 아버지의 로고에 감사하는 뜻을 하나 더 얹어서 지켜왔다. 그때서 생일아침이면 생일을 맞는 당사자는 새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부모님께 먼저 큰절을 올리는것으로부터 그날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효 사상은 그것이 단순한 유교의 생활규범만도 아니고 불교적인 보은사상만도 아닌, 우리의 고유한 조상숭배사상에다가 유교의 옷을 입히고 불교의 살을 더해서 높은 수준의 관념문화로 가꾼 오랜 전통문화라 할수 있다.

사람이 이처럼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

은 어질고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불효하는 사람은 어질지 못한 사람이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착할 수가 없다. 착하지 못한것은 악이니 악은 곧 인간성의 반역이기때문에 주위사람들로부터 도덕적비난을 면할수가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불효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 불효자식은 마을에서 살수 없도록 쫓아내는 풍속을 지녀왔다.

개화기이후 우리는 줄곧 서구문명을 모범으로 삼고 거기에 맞추어 따라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구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듯 이상적인것만은 아니다. 오래동안 노력을 경주한 끝에 고도의 산업화사회를 이룩하여 물질적풍요와 번영을 누리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부산물로서 마땅히 주인이요, 주체이어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한낱 기계의 부속품이나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몹시 당황하고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이룩한 물질문명이 오히려 인간에게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빼앗아간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서구사회는 동양의 사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동양을 배우려고 노력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부모와 로인과 조상을 섬기는 정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이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차차 전 인류문화의 밝은 빛이 되여가고있는것이다.

단 어

효	(명) 孝
집단	(명) 集团
겨레	(명) 同胞, 同族
잇다	(타) 连结, 继承, 接
맥락	(명) 脉络
인습	(명) 旧习, 陋习
마땅히	(부) 应当, 应该
찌꺼기	(명) 渣滓, 残渣
씨앗	(명) 种子
밑거름	(명) 底肥
살리다	(사) 使复活, 救活
뜻하다	(타) 意味着
이른바	(관) 所谓
개화	(명) 开化
혼동하다	(타) 混淆, 混同
천대하다	(타) 轻视, 鄙视
흉내내다	(결합) 仿效(别人), 模仿
여념	(명) 余念
타파하다	(타) 冲破, 打破
계승	(명) 继承
분류하다	(타) 分类
용기	(명) 用器
의식주	(명) 衣食住

영위하다	(타) 谋(生活), 营生, 进行
거부	(명) 拒绝, 排斥
반응	(명) 反应
적대관계	(명) 敌对关系
효율적	(명) 有效的, 效率高的
수용되다	(피) 被吸收, 被接纳
원주민	(명) 土著, (世代居住的) 本地人
백인	(명) 白人
총	(명) 枪
소산	(명) 产物
관념	(명) 观念
종교	(명) 宗教
신앙	(명) 信仰
뒤지다	(자) 落后
흡수하다	(타) 吸收, 吞噬
소멸되다	(자) 被消灭
의미하다	(타) 意味着, 标志着
사라지다	(자) 消失
섬기다	(타) 孝敬
극진히	(부) 精心地, 竭诚
봉양하다	(타) 侍奉, 奉养, 赡养
유교	(명) 儒教
주축	(명) 主轴
오륜	(명) 五伦
판다	(타) (屈指计) 算, 算作, 名列
세련되다	(자) 洗练, 精炼

때로부터	(자) 起源于, 发源于, 来源于
의식	(명) 意识
불교	(명) 佛教
보은사상	(명) 报恩思想
되갚다	(타) 回报, 报答
좃다	(타) 按照, 根据, 遵照
외형적	(명) 表面上, 外形上, 形式上
미치	(부) (见注解)
격식	(명) 格式, 式样, 规则
기복	(명) 祈福
연장	(명) 延长, 延伸
동서고금	(명) 东西古今, 古今中外
막론하다	(타) 不论, 不管, 无论
당사자	(명) 当事者
기리다	(타) 赞美, 赞颂
옷깃	(명) 衣领, 领口
여미다	(타) 整理 (衣襟)
어질다	(형) 善良, 仁慈, 朴实
착하다	(형) 忠厚, 高洁
반역	(명) 叛逆, 背叛
불효자식	(명) 不孝之子
모범	(명) 模范
경주하다	(타) 倾注
산업화	(명) 产业化, 工业化
풍요	(명) 丰饶, 富饶
번영	(명) 繁荣